



‘냉정 남’ 아닌 ‘따뜻한 남’

글 · 金 基 善
 성신여대 교수/독문학

나나 우리가 먼저 있고
 그 다음에 사회가 있다
 기 보다 나와 우리가 있
 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
 있는 것이 아닐까. 이런
 방향으로의 사고가……

안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되
 는 곳이 우리네 고장이라고 한다.
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리라
 생각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사
 리에 비추어 불가능하지 않은 일
 이 마냥 힘들기만 하다.

똑같은 일이라도 아는 사람의
 소개가 있으면 수월하다. 거기에
 힘이 있으면 더 바랄 나위 없다.
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확
 보하기 위해 술마시는데 많은 시
 간을 소모하는가 보다. 그러나 가
 족관계·친지관계를 넘어서면 지
 독히 냉담하다.

서양사람들은 우리의 가족관계
 ·인간관계를 부러워한다. 집안에
 큰 일이 있다던가 누군가 불행을
 당했을 때에는 모두가 돕는다. 일
 중의 보험공동체라고도 할수 있
 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유대에서
 비롯된다. 거기에 비해 서구사회
 는 수없이 많은 보험이 있어 그
 기능을 대신하지만 그것은 개인
 과 기관이라는 익명의 관계를 전
 제로 한다. 그런데 우리의 이 극
 히 찬양할 만한 인간적 유대가
 그리 폭이 넓지 못한 것이 유감
 스러운 일이다.

같은 학교 출신하면 모르는 사
 람이라도 친근감을 느끼려고 한
 다.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우연
 한 경우가 많았을 터인데 학교문
 이 다르면 그 유대가 별로 안생
 기나 보다. 이런 점이 특히 부각
 되는 곳이 직업시장이다. 아마 그
 래서 좋은 직장에 선배들이 많이
 앉아 있는 학교를 머리 싸매고
 찾아드느니? 그렇지 않은 학교
 학생들이 공연히 풀이 죽어 있는
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.

독일사람들에게 존경이 가는점
 이 한 가지 있다. 우리보다 훨씬

사회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다.
 리리네의 청결의식은 아파트 문
 밖 계단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
 가 많다. 고아들이 많아도 혈연
 관계가 아니면 입양을 하지 않는
 데 비해 그들은 자기 아이들이
 있어도 먼 나라에서까지 양자를
 데려다 자기 아이들이나 똑같이
 기른다.

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
 는 잔디가 죽으면 여러사람의 마
 음을 즐겁게 해줄수 없고 그걸
 새로 복구하려면 시(市)가 경비
 를 부담해야 하고 그러면 개인이
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기 때
 문이다. 또 노인이나 신체장애자
 들은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아는
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
 요한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
 문이다.

우리네 의식에는 친척이나 친
 지는 가까운 사람이지만 우리가
 몸담고 있는 사회는 자기와 관련
 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무관심
 이 지배적인 것 같다. 나나 우리
 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
 있다기보다 나와 우리가 있는 동
 시에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이 아
 아닐까.

이런 방향으로의 사고가 점차
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
 이다.

